

新 사찰 건축  
5. 서울 상도선원

# 곳곳에 불법의 의미 · 전통 숨어있는 신도량

현대식 사찰 불사를 생각중이라면 꼭 한 번 들려볼 만한 곳. 상도선원은 도심에 위치한 현대식 사찰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곳이다. 날렵한 '은동불상', 네모난 한지 연등, 인테리어 소품처럼 곳곳에 놓아둔 미술품 등 사찰에 문화를 접목하고 싶었다는 미산스님(상도선원장)의 의도대로 갤러리 사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9년 완공 당시 언론마다 선원의 세련된 미감을 입을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를 가능케 한 건물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상도선원 설계자, 백경국(55)씨의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

### 창없는 상도선원?

"상도선원덕에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의뢰였다. 완공된 지 4년이 흘렀지만 그간 인터뷰 요청을 한번도 받은 적 없었다. 워낙 유명세를 탄 상도선원이었기에 사전조사작업에서도 건축가 말 한마디 정도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준공 당시 현장 사진 한 장에서 겨우 '설계 시공 경건축'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건축가의 운명이라 생각해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상도선원이라는 공간을 인정해줄 때 보람, 희열을 느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익숙한 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는 불자였다. 한 때는 신중하게 출가를 고민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었다. 들을 이야기가 많았다 싶었다.

"종교 건물이잖아요. 불교의 상징성을 외부에 표현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불상을 보며 자신을 반추하듯 사람들을 내면적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 종교성을 처음 맛당뜨리게 되는 건물 초입에 놓자 생각했어요.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일겁니다."

상도선원 전면부에는 장호문의 격자무늬처럼 빼곡한 유리창이 108개다. 불투명창과 투명창이 교대로 늘어선 것이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놀라운 것은 이 안에 삼존불과 6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가운데 불투명 유리창은 석가모니를, 양쪽 불투명창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상징한다. 투명창은 세로로 6개 덩어리로 분할시켜 6근, 6진의 불교 기초교리를 표현했다. 가로 6줄의 유리로는 6식을 표현했다. 6근과 6진이 만나 6식을 일으킨다는 불교 기본 세계관을 담았다. 사람들은 절에 들어가기 전 모든 것이 안이비설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들어간다. 명료한 가르침을 담은 투명창 우리는 의식을 정화시킨다. 10여개의 시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결정됐다. 다른 디자인이 선택됐다면 지금의 상도선원 모습과는 또 달랐을 것이다. 창을 내지 않고 전체를 콘크리트로 마감했을 수도 있었다. 재료 선택은 차후였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건축양식은 시대 변화에 따라 순응되어야겠죠. 그러나 불교의 상징성은 시대 흐름에 관계없이 건축양식안에 녹아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전통의 맥을 잇는 일입니다."

### 지금껏 몰랐던 상도선원의 '민낯'

상도선원의 입지조건은 전통사찰과 전혀 달랐다. 주변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었고 허락된 땅이래봤자 경사지 언덕의 124평이 전부였다. 결코양만 그럴



상도선원의 108 유리창에는 삼존불과 6근, 6진, 6식에 대한 상징이 담겨있다.



앞건물과 뒷건물을 잇는 통로



지하에 위치한 법당. 상도선원의 미감이 집약된 곳이다.



불상을 위해 조명, 높이, 구조 등을 배려했다.



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벽에는 미술품이 장식되어 있다.

### 2009년 완공 · 경건축 백경국 설계 유리창 108개 등 곳곳에 불교관 심어 공간적 한계 '분할'로 극복하고 전통 가람배치 형식 · 내용 살려 법당은 '상도선원' 건축미학 집약

싸하게 만들어 건물 한 동에 필요한 공간을 넣어도 될 일이었다. 평범한 회사나 상가 건물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건축물이었다.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현대라는 이름으로 단절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고 기와지붕의 건축양식만 차용하는 것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격이었다. 불교건축에 담긴 의미, 본질이 중요했다. 건축가는 불교 의미를 드러내는 구조에 전착했다.

일심(一心)으로 진리 세계로 향하라는 의미를 지닌 일주문에서 보듯 사찰의 구조는 보리심을 되새기며 한걸음씩 나아가 수 있도록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간 후 보이는 너른 마당, 그 끝의 대웅전. 길어진 동선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의 변화는 길을 걷는 이에게 종교적 이상향을 체험케 한다.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만 공간에는 세속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는 이러한 불교의 상징성과 전통성을 조그만 땅에 집약시켰다. 우선 4층 높이의 한 덩어리 건물을 두 공간으로 나눴다. 앞 건물은 어린이법당, 나한전, 장경각 등으로 활용했고 두 건물을 잇는 계단을 만들어 뒷 건물을 승방, 공양간 등의 요소체로 구분했다.

앞 건물을 누각처럼 들어올리니 그대로 일주문이 되었다. 양 옆에 사천왕상을 조각할 벽면도 남겨두었다. 일주문에서 몇 걸음가면 갑자기 사방이 트이고 하늘이 드러난다. 왼쪽에는 두 건물을 잇는 유리 통로가 있다. 그 너머로 나무도 보인다. 극대화된 공간적 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상도선원의 법당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는 이 '구조'야말로 상도선원의 핵심이라 말한다. "법당에서 종교적 감흥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위해 법당에 높이를

주고 상을 세우면 누군들 그러한 감정을 못 느끼겠어요.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을 지나고 나서야 법당은 드러나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모르게 진경에 대한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공간과 건물의 관계는 바로 이런 데서 의미를 띠다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심리선을 따라 동선을 만들고 공간을 나누는 것. 백 건축가는 '분할'에서 전통건축의 요체를 짚어냈다. 석굴암에서 전실과 주실을 통로로 이었듯 분절을 통해 공간은 확장되고 종교적 감동에 대한 여지도 확보된다. 백 건축가는 여기에 덧붙여 "건축은 공간과 형태 두 가지로 나뉜다"며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형태가 필요한 것"이라 강조한다. "형태를 위한 형태, 공간을 위한 공간은 없다"는 것이다.

### 지하에 부처님을 모신다고?

건물을 나눴더니 대웅전이 위치할 면적이 충분치 않았다. 땅을 파다. 신도들은 난리가 났다. 부처님을 밟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도들을 설득해야 했다. 1년3개월이 걸렸다. 3개월만에 완성된 설계안은 착공하기까지 1년이란 시간을 더 필요로 했다. 전통

과 현대의 접점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내홍이었다. 법당인만큼 높이를 고려해 땅을 깊게 파다. 약 100평(연면적 311.87㎡)에 가까운 크기의 법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건축가의 의도를 이해했다. 확트인 공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운데 기둥을 없애고 양쪽 모서리로 밀어넣었다.

법당에는 상도선원의 조형적 요소가 모두 압축되어 있다. 은은한 나무바닥의 색감과 베이지톤의 부드러운 조명 가운데 위치한 날씬한 부처님은 석굴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조각가 서창원 씨가 비행을 만드는 재료인 두랄루민이라는 금속으로 제작했다. 건축가는 원불이 위치한 뒷 벽면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입체감을 부여했다. 불상에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에도 신경썼다. 한지연등은 한지공예가 김정순 씨의 작품이다. 연등 공간을 감싼 천장은 천장지를 만든 재료인 두랄루민이라는 금속으로 제작했다. 건축가는 원불이 위치한 뒷 벽면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입체감을 부여했다. 불상에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에도 신경썼다. 한지연등은 한지공예가 김정순 씨의 작품이다. 연등 공간을 감싼 천장은 천장지를 만든 재료인 두랄루민이라는 금속으로 제작했다.

선원은 날렵한 느낌의 유리외관과 달리 포근한 느낌의 '나무집'이다. 뒤편 건물은 적삼목으로 운치를 더했고 내부 역시 바닥, 계단, 벽 등 곳곳에 나무를 썼다. 나무의 종류만도 다섯 가지 이상이다. 특히 실내 계단은 붉은색 아프리카산 부빙가 나무를 써서 무게감 있는 고풍스런 느낌을 자아낸다. 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7미터나 되지만 지루하지 않게끔 벽면에 조각상을 두었다. 갤러리를 두고 싶어 했던 미산스님의 제안을 벽면에 배치한 것이다.

장경각에 쓰인 나무는 전통사찰의 느낌을 살리고 자고목(古木)을 사용했다. 재료를 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딘가에서 쓰였을 나무는 상도선원에서 다시 살아났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나무의 시간성을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서재안에 나무테마상 고스란히 새겼다.

상도선원의 주인공은 부처님이 아니다. 6식에 대한 가르침을 품고 일심합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다. 건물을 나누는 것이 먼저였고 법당은 그 후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도선원은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경에 다가가기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건축가 백경국은

한양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 건축과를 졸업했다. 재학 당시 세계 2위 건축그룹 NBBJ에 스카우트되었다. 한양대 교수를 거쳐 현재 경건축 대표이다. 유학당시 전공서적만큼 불경이 많았다. 불광사 광덕 스님께 법명 원명(願明)을 받았다. 16살에 작곡가로 데뷔한 문준란 등에게 곡을 주었다. 부친은 이미지의 동백야기씨를 만든 백영호 씨다.

설계: 용산 전경기법관, 오하이오 주청사, 신도림 푸르지오, 부산 안국선원 등



## 수취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결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1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기풍(奇風) 지르느 할·뵈이 대표적(代表)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백(禪伯)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

### '줄없는 거문고' 연주하고 '구멍 없는 피리소리' 들으며 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 하는 '밀 없는 배'

### 간화선 수행의 실재와 깨달음의 연금술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청원무이 저 | 146판 | 흑백 | 468쪽 | 15,000원

이 책은 청원 무이법사(지불회 지도법사)의 30여 년에 달하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구도기로부터 시작된다. 제1장 평상심의 일상, 제2장 불조(佛祖)의 가르침과 수행의 실제, 제3장 깨달음의 연금술, 제4장 선(禪)의 뒤안길, 그리고 화두 관문인 무이십관(無二十關)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관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해줄 '밀바닥 없는 배'가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opia5@daum.net

##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고추구 12E 9구    인자구 28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 공단연등(고리용)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 건전지 초(형사용) 탈피이 방식

▶ 가장, 탈피이, 각종 형사용에 적합

▶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bulje daewon co., ltd  
BULJE DAEWON CO., 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